

모리사와 최정호 폰트  
한글 폰트의 DNA

Morisawa Choi Jeong-ho Fonts  
DNA of Hangeul Fonts

## 한글 폰트 DNA의 계보, 최정호 서체 원도의 디지털 복원이 완성되기까지

“금속활자를 발명한 조상을 가진 후예의 긍지로  
마땅히 조잡한 한글 활자를 개량할 의무를 느껴야  
하지 않겠소?”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인용, 안그래픽스 출판

이 말은 최정호 씨가 처음으로 한글 원도 제작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자에는 사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단적으로 집약되어 있지 않은가(서체의 굵기를  
‘패밀리’라고 칭하는 것은 인간의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며,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 역사가 만들어 내는 토지 고유의 미의식이나  
감각은 그 문화의 민족에 의해 계승되는 것으로,  
모리사와가 최정호 씨에게 한글 원도 제작을 의뢰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복원된 최정호 디지털 서체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최정호 씨에 의해 어떻게 한글 서체  
원도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사진식자기의 발달에 따라  
활자에서 사진식자기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활자 문화에 유래 없이 긴 역사를 지닌  
한국은 특히 문자에 관해서 조예가 깊어, 사진식자까지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신문이나  
교과서에서의 활용이 크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출판사나 인쇄소는 앞다투어 사진식자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모리사와의 사진식자기도 대량  
도입되어, 로컬용 한글 원반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모리사와와 최정호 씨가 만나 이 큰 프로젝트에  
대응하게 됩니다.

‘훈민정음’에서 읽어낸 DNA를 그 당시부터  
대대로 설계해서 구현해 온 최정호 씨의 원도는 매우  
귀중합니다.

‘글자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는 이념으로,  
모리사와는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 속에서도  
문화적 자산을 지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의  
토대가 되어 미래로 연결시킵니다.

이 14종의 서체를 통해 최정호 씨의 DNA와 한글  
폰트 DNA가 계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 **Genetic family tree of Hangul Fonts, way to completion of digital restoration of the original drawing for fonts by Choi Jeong-ho**

'Being proud of ancestors who invented a metal typeface, should you feel it your obligation to improve roughness of Hangul type, shouldn't you?'

Cited from 'Hangul Designer Choi Jeong-ho'  
by Ahn Graphics publishers

Inspired by the above words, Choi Jeong-ho decided to develop the original drawing of Hangul.

We assume letters are brief collection of historical background.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weight range of typefaces are called 'family' as a common idea with history of human being.)

Sense of beauty or feelings peculiar to each land are succeeded by local people. Therefore, it is no wonder Morisawa asked Choi Jeong-ho for production of the original drawing of Hangul.

How was the original drawing for Hangul typeface established by Choi Jeong-ho? We shall introduce the history of digital typeface of Choi Jeong-ho.

In the middle of the 1960s, accompanied by development of phototypesetter, the age shifted rapidly from letterpress printing to typesetting. Since Korea has a long history and profound knowledge of letter culture, public had strong interests on the transition to typesetting without any doubt. As applying to newspaper and textbooks was powerfully expected, publishers and printing shops competed with others for buying phototypesetters.

Since Morisawa's phototypesetters were installed widely and the original board of Hangul for local usage was required at the time, Morisawa met Choi Jeong-ho and decided to work on this giant project.

The original drawing of Choi Jeong-ho is truly precious as it expresses a gene of the times, interpreted from 'Hunmin Jeong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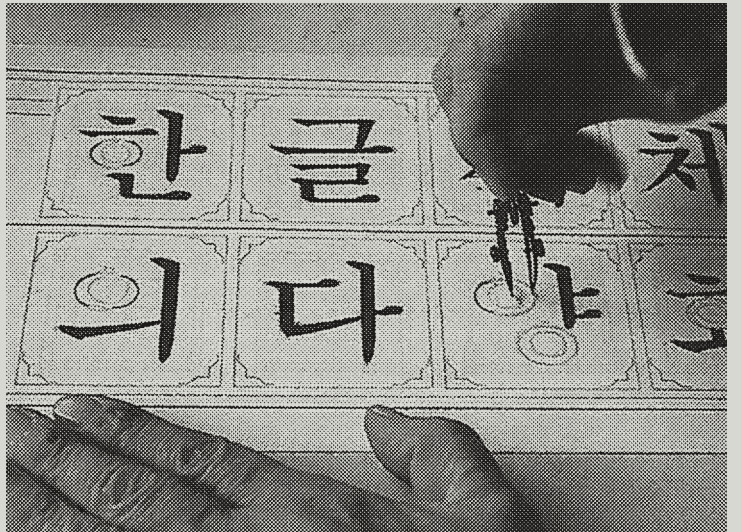
With an idea of contribution to the society through letters, Morisawa continues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as a foundation of the further development in the future even though technology gets better and better as time goes forward.

Wishing these 14 typefaces to succeed a gene of Choi Jeong-ho and a gene of Hangul Font.





〈안면〉, 1981  
Madang,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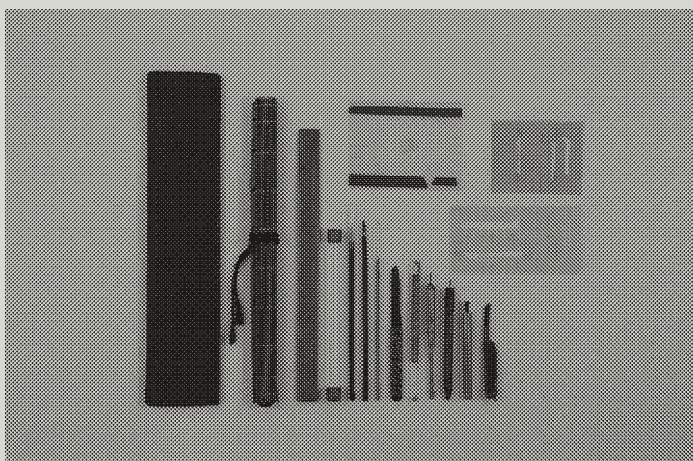
〈한국인〉, 1986  
Hankookin,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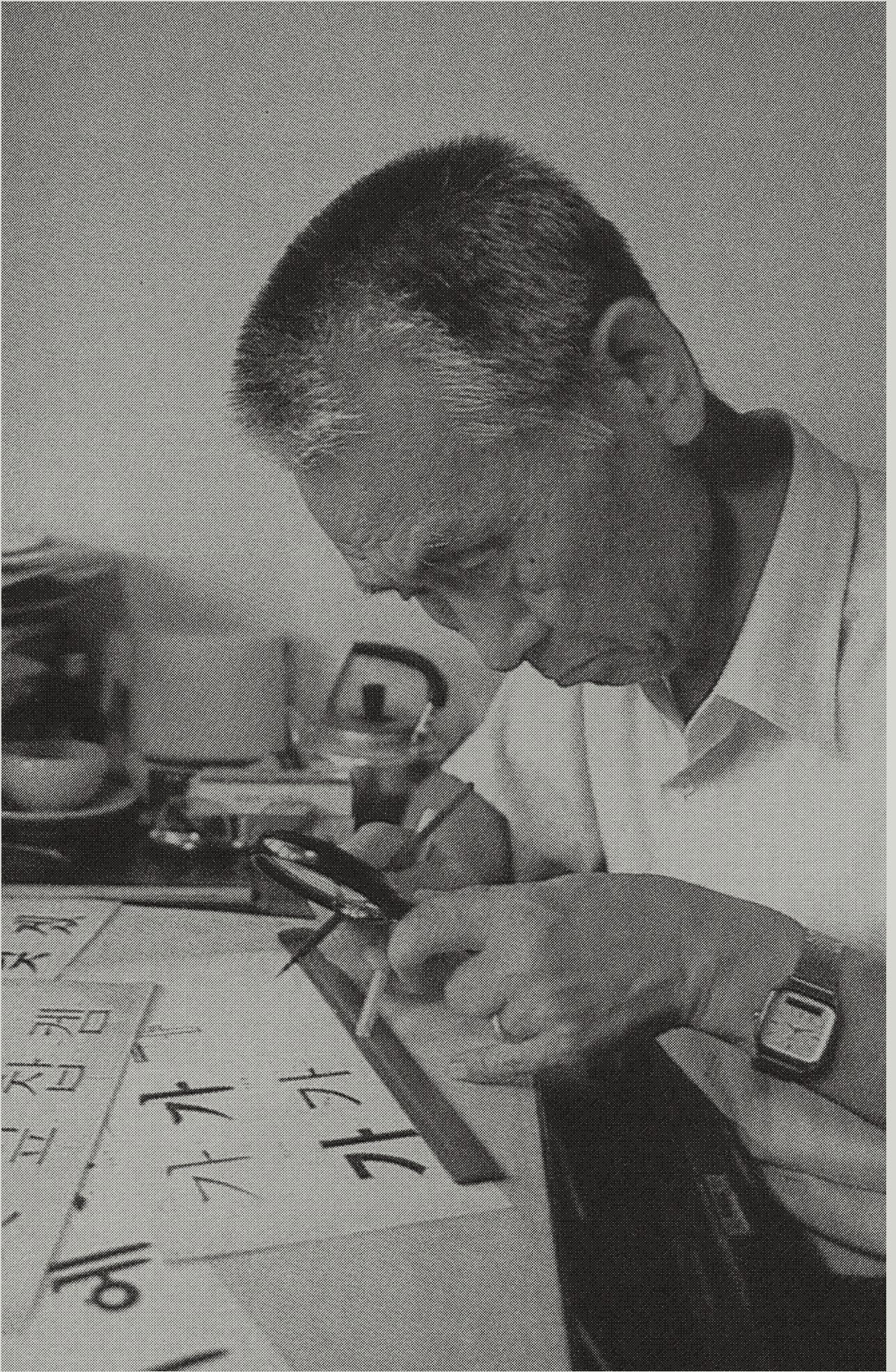
《한국인》, 1986  
Hankookin, 1986



원도를 설계중인 최정호  
Choi Jeong-ho, Designing the original drawings of typefaces



최정호의 레터링 도구 / 세종대왕기념관 소장  
인력견 사진  
Choi Jeong-ho's lettering tools / Sejongdaewang memorial hall  
photographed by Lim Hak-Hyeon



《관공진》, 1986  
Hankookin, 1986





## 각 서체설명

## Explanation of typefaces

---

### 비고

- 이번 제작된 디지털 폰트는 주식회사 모리사와 분켄 주식회사에 보존되어 있는 14서체의 문자판\*을 바탕으로 이에 충실하게 복원된 폰트이다.

\*문자판이란, 문자를 축소 촬영한 네거티브 필름을 투명한 유리 2장에 끼워 접착시킨 것으로, 사진식자기에 사용하는 문자 세트를 말한다.

- 사진식자기 문자판의 문자수에서 KS코드(KSX1001)로의 문자확장은 (주)산돌커뮤니케이션의 대대적인 협력에 의해 실현되었다.

- 디지털 복원에 있어서 디자인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하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네모틀에서 벗어난 부분 삭제

-글리프 자체가 1000유닛 이상의 글자는 99%로 축소

-문자 위치 수정

---

### Notes:

- The digital font produced for this occasion is a revival of the original letter boards\* for 14 typefaces which were preserved by Morisawa Bunken Inc.

\*Letter board is a set of negative film of reduced-size letters, glued between a pair of clear glasses for phototypesetting use.

- An expansion of the number of characters from the original letter board of phototypesetting machine to KS Code (KSX1001) was able to be made with great cooperation of Sandoll Communications., Inc.

- On digitizing, the following revisions were made with a concept of design unchanged:

-Protrusion from virtual body dissolved

-Glyphs of more than a thousand units were reduced in size by 99%

-Revised the position of the glyphs.

### 중명조 HAB1 (1972년)

첫닿자의 작은 속공간과 빼침, 곡선을 길게 늘어뜨린 것으로 보아 세로쓰기에 적절한 자형으로써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45년부터 서서히 세로쓰기 문화에서 가로쓰기 문화로 변했으며, 현재 세로쓰기 문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세로쓰기에 적절한 자형으로 그려진 중명조 HAB1은 최정호 원도 중에서도 희소하다 할 수 있다.

안그래픽스 출판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참조

### Jungmyeongjo HAB1 (1972)

With relatively small aperture, long stroke of ending sweep or curved lines for initial consonants, it is indicated that this typeface is suitable for vertical writing. During the postwar period in Korea, writing custom gradually shifted its style from vertical into horizontal. Today almost no vertical writing is left therefore this Jungmyeongjo HAB1 is one of the unique typefaces among the original drawing of Choi Jeong-ho.

Referring to Hangul Designer Choi Jeong-ho  
by Ahn Graphics publishers

원도 제작에서는 황무지이던 이 땅에 초현대적인 벤틀 자모조각기를 들여놓고 바라보니 마치 마부에게 트럭을 갖다준 셈이었다. 물론 기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니 우리라고 이 기계를 부릴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쏠 수 있는 이치로, 원도가 있어야 조각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나는 국문을 쓸 때 옛 사람이 쓴 한글 서적을 많이 뒤져본다. 예스럽게 인쇄된 것뿐 아니라 규수들이 손으로 베끼 「낭자전」 따위도 모두 외울 만큼 들여다봤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현대화하기는 너무 벅차고 지난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뿐이었다. 미미한 성과지만, 이것을 디딤돌로 다음 세대가 결실을 맺어주리라 희망해본다.

선을 잘 긋는다거나 손재주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에 대한 기본 원칙도 모르고 팬스레 세리프 같은 것을 붙인다거나, 제멋대로 변형시키는 것은 사상누각 격이지요. 글자의 기본 원칙 같은 것을 알고나서야 베리에이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 멋도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중명조 HAB31 (1972년)

중명조 중에서도 굵기가 얇은 부류. 자모음 간의 공간과 첫닿자의 속공간이 큰 것이 특징. 1971년에 모리사와 분켄을 방문해서 사진식자 공정을 배운 후, 작성되었다.

전체적으로 글자 무게중심이 높은 인상으로 받침이 크며, 속공간이 넓어 정방형의 네모틀에 조화롭게 맞추어져 있어, 일본어 서체 Ryumin과의 궁합을 고려해서 그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그래픽스 출판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참조

인쇄 서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명조의 역사는 활자서체 혁신의 역사이기도 하다.

본문 조판용부터 제목용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독특한 직선, 경쾌한 흐름, 그리고 우아한 품격을 갖춰 아름답고, 가독성이 뛰어나다.

대용 문자판: 중명조체ABB1

### Jungmyeongjo HAB31 (1972)

This typeface has comparatively thin line among Chu-Mincho styles. Spaces between consonants and vowels, and large aperture for initial consonants are characteristics of this style. When Choi visited Morisawa Bunken Inc. in 1971, he studied the process of photo typesetting and produced this f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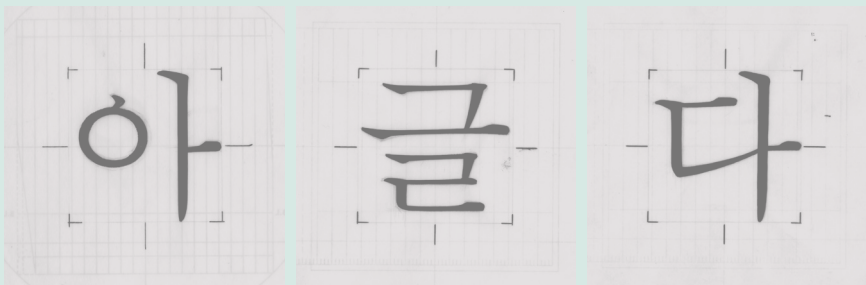
Overall, a little high center of gravity, relatively large patchim and large aperture lead to the better balance in a regular square shape. It indicates that this font is designed based on consideration of compatibility with Japanese writing (Ryumin).

Referring to Hangul Designer Choi Jeong-ho by Ahn Graphics publishers

A history of Mincho, in other words, a style of printing, can be considered as a history of innovating typeface.

They are easy to read and beautifully shaped for such as typesetting composition or headlines with well balanced unique straight lines, light flow and an air of grace and dignity.

Corresponding typeface: Chu-Mincho ABB1



중명조 HAB31  
Jungmyeongjo HAB31

글자 하나하나에 내 혼이 박힐 정도로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때야 한글이 지니는 글자의 생리를 어렵뜻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 같았다. 세로로 쓸 때의 글자의 기둥과 가로로 쓸 때의 글자의 기본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이치가 잡혀갔다. 나는 완전히 광인이 되었다. 책이든 신문이든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고, 다만 보이는 것은 그 글자 하나 하나가 가직 있는 뼈대요, 늘어서 있는 글자의 종합적인 구조 뿐이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렀고 약 반년만에야 원도 한 벌 제작이 끝났다. ‘최형한잔 합시다.’ 과안대소하는 김사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왈각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승리의 눈물이라 할까. 실패는 아닌 모양이었다. 어느 정도 성공에 가까웠던 것이다.

태명조 HA1 (1973년)

부드럽고 청초하며, 상쾌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 광고 관련 소재목이나 본문, 캐치 카피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속공간이 작고, 약간 큰 돌기가 흐르는 듯이 옆으로 넘어진 점 등, 태명조체의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계승하고 있다.

대응 문자판: 태명조체 A1

Taemyeongjo HA1 (1973)

Soft, graceful and refreshing atmosphere. This font is well balanced and suitable for a wide range of document such as design, subheads, bodies or catch phrases for advertisement.

With small aperture, large stroke and fluent down in sideways, it takes softness and grace over Futomincho.

Corresponding typeface: Futomincho A1

태명조 HA101 (1973년)

태명조HA1에 비해 종횡선, 삐침 등이 선명한 콘트라스트를 이루고 있어, 태명조체 A101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대응 문자판: 태명조체 A101

Taemyeongjo HA101 (1973)

Compared to Taemyeongjo HA1, it has a sharper contrast,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Futomincho A101, on such as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or ending strokes with sweep or hook.

Corresponding typeface: Futomincho A101



태명조 HA1  
Taemyeongjo HA1

나는 국문을 쓸 때  
옛 사람이 쓴 한글 서적을  
많이 뒤져본다.

나는 ‘글씨를 쓴다’고  
말하지 않고,  
‘자형설계’를 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활자체 HA301 (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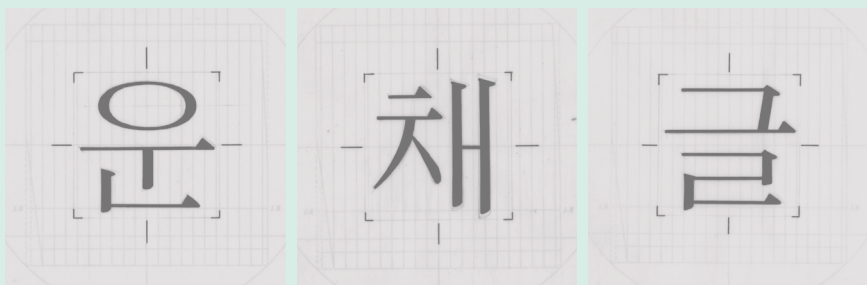
문자판 시대에 대응하는 모리사와 서체는 불분명하지만, 라틴·알파벳에 있어서 모던 세리프체의 특징(Bodoni 등에서 나타나는)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된다. 날카롭고 거친 콘트라스트의 종횡선, 돌기 부분, 특히 한글 자음 ‘ㅇ’의 형태 등은 Bodoni 계열의 알파벳 ‘O’의 특징과 매우 닮아 있다.

모리사와 대응: 서체없음

Hwaljache HA301 (1979)

Although Morisawa's correspondence to the age of letter boards is unknown, it seems some of the features of modern Serif style (shown on Bondoni) from Latin alphabet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Vertical and horizontal strokes in sharp and extreme contrast, elements of shooting, and a shape of Hangul consonant 'ㅇ' are especially similar to the features of 'O' from alphabet of Bondoni style.

Corresponding typeface: none



활자체 HA301  
Hwaljache HA301



모리의  
사와

글꼴  
원도

건출명조 HMA1 (1972년)

확실한 검은색을 띠는 두꺼운 굵기의 한자와, 가늘게 설계된 날카로운 가나 문자와의 강약이 특징인 MA1이나, 최정호는 이를 절충하여 한글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MA1의 가나처럼 고리, 뺨침은 날카롭게 얇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MA1의 한자와 가나의 중간 정도의 굵기와 검은색을 띠고 있다.

대응 문자판: MA1

Gyeonchulmyeongjo HMA1 (1972)

Contrast between Kanji with certain blackness and Kana with thinness and sharpness is a characteristic of MA1. It seems Choi Jeong-ho was inspired by its harmony of mixture on designing Hangul. As like Kana of MA1, hook/sweep of strokes get sharpened at the ending. On the other hand, overall width/blackness is in accordant with those in-between Kanji and Kana of MA1.

Corresponding typeface: MA1

건출명조 HMA31 (1972년)

신문의 제목용 서체. 점의 스타일이나 부리는 둥그스름한 모양을 하고 있어, 부드러운 이미지의 문장을 잘 때 선호된다.

크고 대담하게 구부러지는 돌기나 굵고 둥근 맺음 부분에서 MA31의 요소를 많이 볼 수 있다.

대응 문자판: MA31

Gyeonchulmyeongjo HMA31(1972)

Suitable for big headlines of a newspaper. Style of dots and bump at the end of brush stroke, a decoration on the line edge have roundness therefore it gives us a favorable impression for writings with gentle tone.

Elements such as rapidly curved lines of strokes, or wide and round ending lines show so much elements of MA31.

Corresponding typeface: MA31



요즈음 젊은 사람들  
체질에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야.  
원체 지루하고 따분한  
작업이다보니 처음에는  
제법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다가도 몇 달이  
못 돼 도망을 치고 말지.  
장인 의식이 있어야 해.  
장인 의식을 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이 직업인가봐.

한글의 기본 원칙부터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가로줄기가 0.1밀리미터만  
움직여도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는 사실은 글자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지도 못하는데 날려고  
기교를 부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극세고딕 HBC501 (1978년)

한글 자음 ‘ㄷ’이나 ‘ㅇ’에서 알 수 있듯이, 자음의 속공간이 크게 그려져 있어, 전체적으로 다소 평체처럼 보이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매칭되는 일본어 서체인 Shingo에는 이러한 평체의 특징은 볼 수 없다.

대응 문자판: BC501

Geugsegothic HBC501 (1978)

As you see Hangul consonants with large counters such as ‘ㄷ’ or ‘ㅇ’, the overall look is a little flat. However Shin-Go, as matching Japanese typeface has no feature of flatness.

Corresponding typeface: BC501

세고딕 HBC1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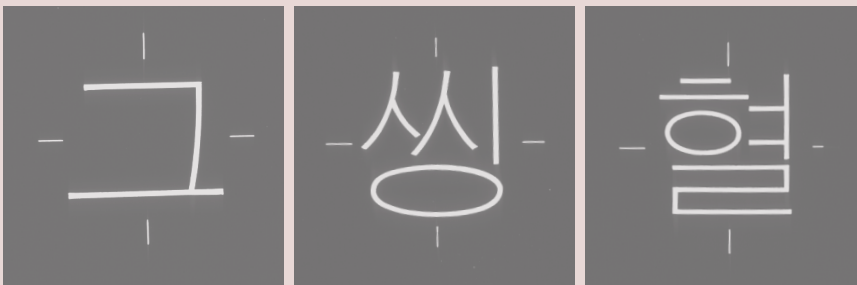
극세고딕HBC501에 비해 굵기뿐만 아니라, 받침이 있는 문자는 다소 장체가 되어 있는 등 자형의 수정도 되어 있다. 콘트라스트가 적은 고딕, 큰 속공간 중에서 안쪽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형성하고 있는 문자 등, BC1의 대응 서체로서 그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또한, 엘리먼트의 접합부를 일부러 떼어 놓는 것으로 얇은 고딕체로서의 가벼움을 연출했다고 추측된다.

대응 문자판: BC1

Segothic HBC1 (1972)

Compared with Geugsegothic HBC501, there are some amendments on graphic formula, not only boldness but also length on letters with patchim, changing into relatively longer shape. As corresponding typeface to BC1, it has so much feature in boldface or letters with large aperture and counter.

Corresponding typeface: BC1



세고딕 HBC1  
Segothic HBC1

한글의  
기본 원칙부터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중고딕HBB1 (197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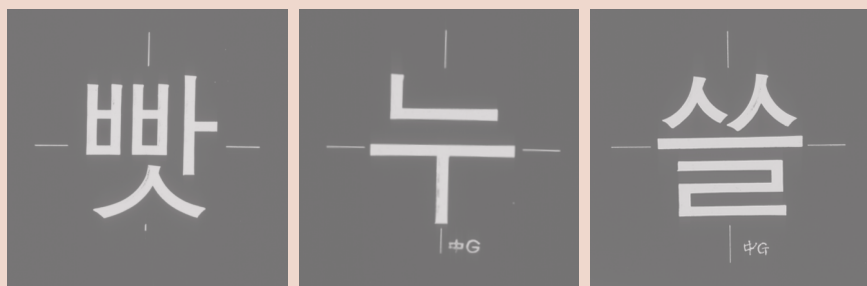
비교적 작은 크기와 악센트 있는 엘리먼트가 일본어 서체BBB1과 연결된다. 문자를 조합했을 때 울퉁불퉁한 감이 HBC계열보다 두드러지므로, 본문용 서체로서의 가독성과 안정성이 좋다.

대응 문자판: BBB1

Junggothic HBB1 (1973)

Relatively small size and element of accent are common with Japanese typeface BBB1. The roughness when combined with other letters are extremely stood out more than the group of HBC therefore readability and stability as typeface for the body is good.

Corresponding typeface: BBB1



중고딕HBB1  
Junggothic HBB1

나는 동아일보사 건물 후문에서 한참을 서성댄 뒤에야 벌떼처럼 쏟아져나오는 소년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뛰는 녀석을 잡아 세웠다. 아마 이날 신문을 가장 먼저 산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나는 가벼운 흥분을 누르며 신문 1면부터 차례로 훑어내려갔다. 뻑뻑이 찌인 지면 본문 활자 위에 굵직한 제목글자의 자획이 눈앞으로 확대되어 들어오며 너울거렸다. 나는 나이답지 않게 긴장된 머리를 가누기 위해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날부터 《동아일보》는 새자모로 활자를 전면 개편했는데, 이 활자의 초호 한글 원도를 내가 썼던 것이다. 이 원도가 실제로 신문지면에서 어떻게 반영되며 조화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날 나의 긴장된 관심사였던 것이다. (...) 부족한 대로 나는 또 하나의 일을 했다는 일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느끼는 일이지만 한 가지 일이 끝날 때마다 숫색시와 같은 부끄러움과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나는 계속 신문을 응시했다. 내가 쓴 한 글자 한 글자가 합쳐서 이룩된 낱말이나 문장이 복합된 문자로서 조화가 잘되었는가를 살피면서…….

태고딕HB1 (1972년)

대응 문자판과 동일하게 세로선의 돌기로  
인해 억제된 듯한 강한 힘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 글자에서는 선명하게,  
큰 글자에서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사이즈의 문자로 산뜻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대응 문자판: B101

Taegothic HB1 (1972)

As same as corresponding letter boards, it has  
a moderate strength with accent on vertical  
strokes. This element makes it possible  
to show clearly in smaller size, strongly  
in larger size and to give a non-persistent  
impact with a variety of font sizes.

Corresponding typeface: B101



태고딕HB1  
Taegothic HB1



가나  
강간  
데이  
러너

견출고딕HMB1 (1972년)

굵기는 대응 문자판 MB1에 해당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엘리먼트의 위치와 공간의 사용법이 다르며, 문자의 사이즈에도 차이가 있다.

대응 문자판: MB1

Gyeonchulgothic HMB1 (1972)

Consistency in width is in common with its corresponding board MB1 while position of elements, use of space or size of letters varies.

Corresponding typeface: MB1

견출고딕HMB31 (1973년)

신문제목용 서체. 고전적인 분위기의 중후함이 느껴진다.

견출고딕HMB1과 비교했을 때, 견출고딕HMB31가 디자인적 완성도가 월등히 높다. 일정하고 깔끔한 검은색과, 디자인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돈되어 있다. 대응 문자판인 MB31과의 정합성과도 연결된다.

대응 문자판: MB31

Gyeonchulgothic HMB31(1973)

Suitable for headlines of a newspaper. It holds an air of classic steadiness and dignity.

In aspect of design, Gyeonchulgothic HMB31 is much more perfect than Gyeonchulgothic HMB1. It has constant beautiful blackness and its concept of design is consistent and well-arranged. It also has certain consistency with corresponding board, MB31.

Corresponding typeface: MB31



견출고딕HMB31  
Gyeonchulgothic HMB31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읽는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글자가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쓴다는 것이 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글씨를 쓴다고 하지 않고, 자형을 설계를 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무렵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다 할 스승도 없었고 특별한 참고 서적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전철을 나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그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고플 따름이다.

### 중환고딕HBDB1 (1978)

다소 작은 크기로 붓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나타내는 중환고딕HBDB1은, 대응 문자판 Jun의 가독성을 고려한 문자 크기와 손으로 쓴 이미지를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한글 자음의 ‘ㅅ’의 왼쪽 내림의 부드러운 곡선이나 ‘ㅍ’의 역사다리꼴에 모이는 세로선 등에서 손으로 쓴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 문헌 없음  
대응 문자판: Jun

### Junghwangothic HBDB1 (1978)

Jeonghwangothic HBDB1, a little small sized font with fluent flow of stroke takes legibility and image of handwriting over corresponding board, Jun.

Some parts gives us an impression of handwriting such as soft curved line of left stop in a consonant of Hangul (ㅅ), or vertical lines gathering in shape of trapezoid upside down (ㅍ).

Reference text: none  
Corresponding typeface: Jun

글자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은  
내가  
떨 것

부리계열	중명조 HAB1 Jungmyeongjo HAB1	1972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중명조 HAB31 Jungmyeongjo HAB31	1972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태명조 HA1 Taemyeongjo HA1	1973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태명조 HA101 Taemyeongjo HA101	1973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활자체 HA301 Hwaljache HA301	1972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견출명조 HMA1 Gyeonchulmyeongjo HMA1	1972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민부리계열	견출명조 HMA31 Gyeonchulmyeongjo HMA31	1972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극세고딕 HBC501 Geugsegothic HBC501	1978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세고딕 HBC1 Segothic HBC1	1972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중고딕HBB1 Junggothic HBB1	1972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태고딕HB1 Taegothic HB1	1973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견출고딕HMB1 Gyeonchulgothic HMB1	1972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견출고딕HMB31 Gyeonchulgothic HMB31	1973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중환고딕HDB1 Junghwangothic HDB1	1978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서체 원도와 사진식자체

Original drawings of typefaces and phototypesettings

에	요
엇	오
위	윗
일	월
있	안

꺨	그	권
곤	곶	귄
거	긴	기
것	검	굴
갑	근	길



극	파	꼬
꺾	편	꼬
꺼	꿇	껏
꿍	깁	깁
꿇	깁	깁

회	혜
헨	히
훤	헛
확	휘
히	힘

씻

쓸

쌈

싼

쌀

씩

씩

쓰

쑤

씨

싸

쌍

손

쫘

스

땡

땡

땡

땡

땡

땡

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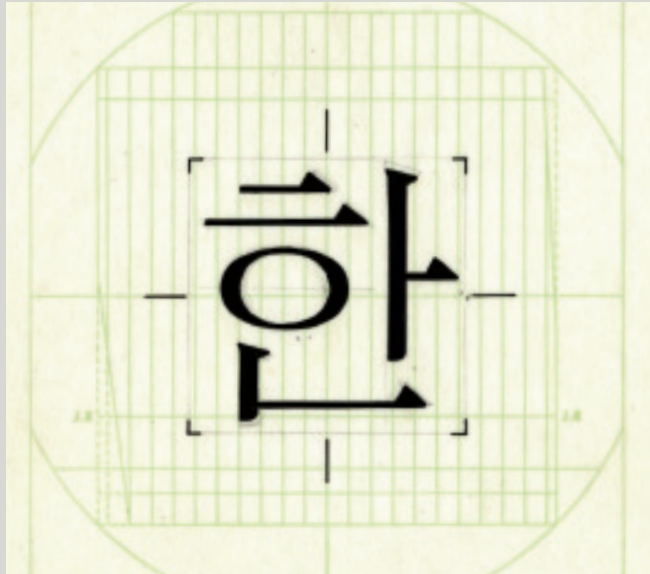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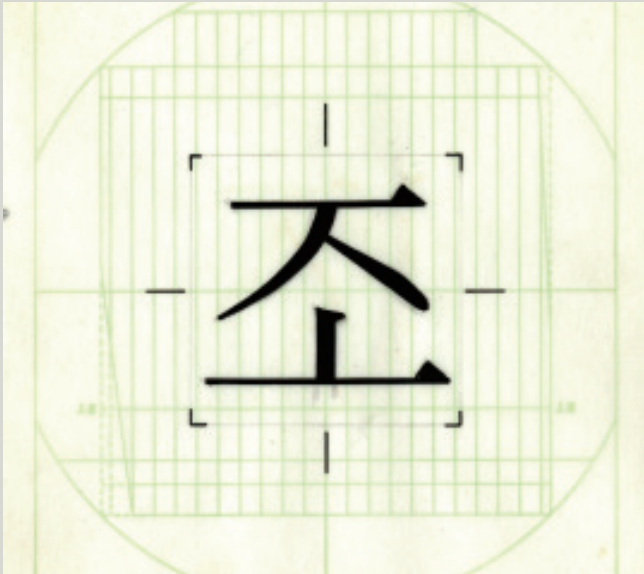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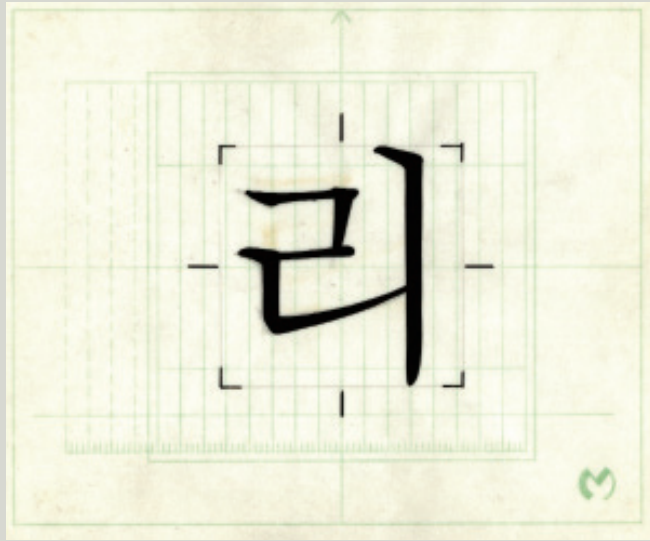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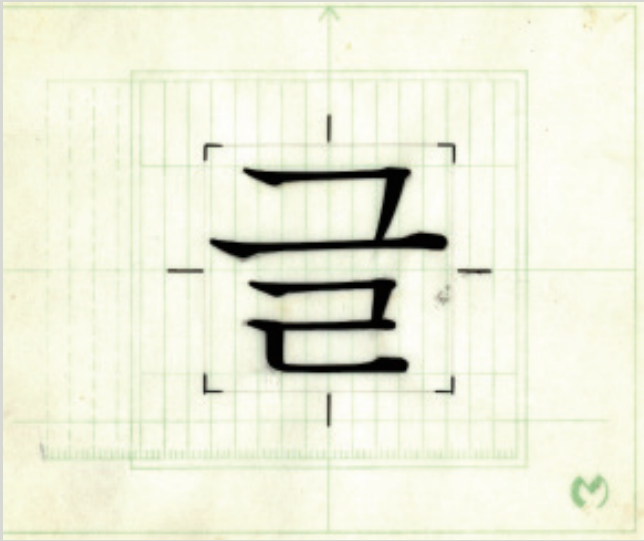
땡

땡

땡

랜	룩	럴
랑	뤼	룻
랫	룹	람
를	럿	램
럭	랭	록

농	녹
닉	넥
녜	낸
낫	니
능	냥



중명조 HAB31 원도 (위)

모리사와 소장

Jungmyeongjo HAB31 original drawing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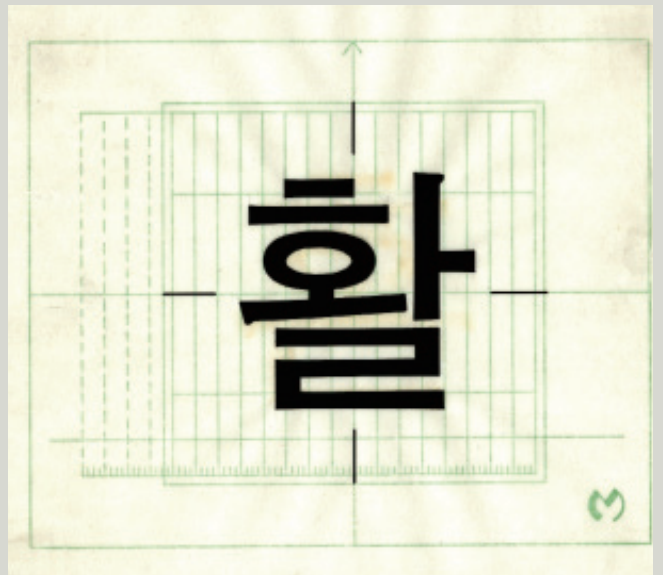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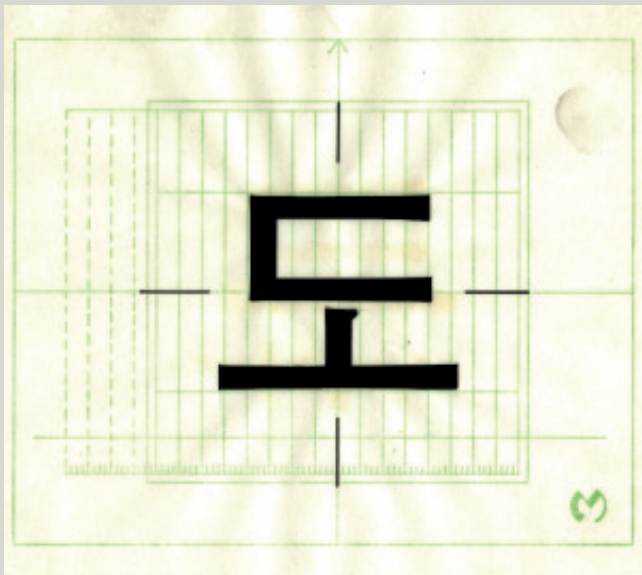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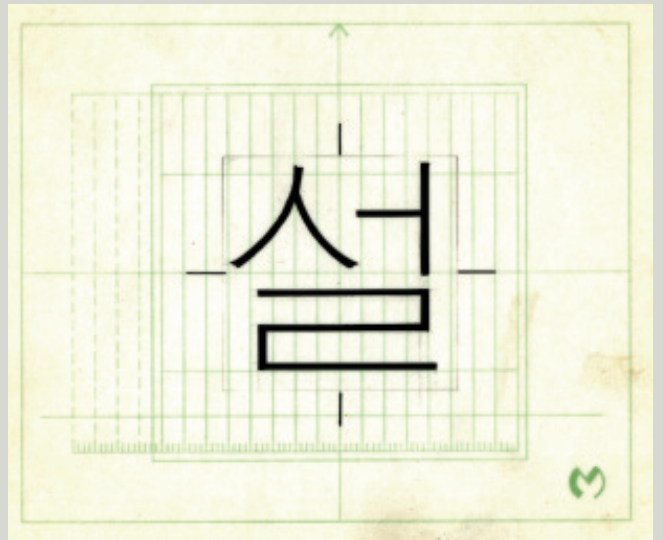
Morisawa collection

활자체 HA301 원도 (아래)

모리사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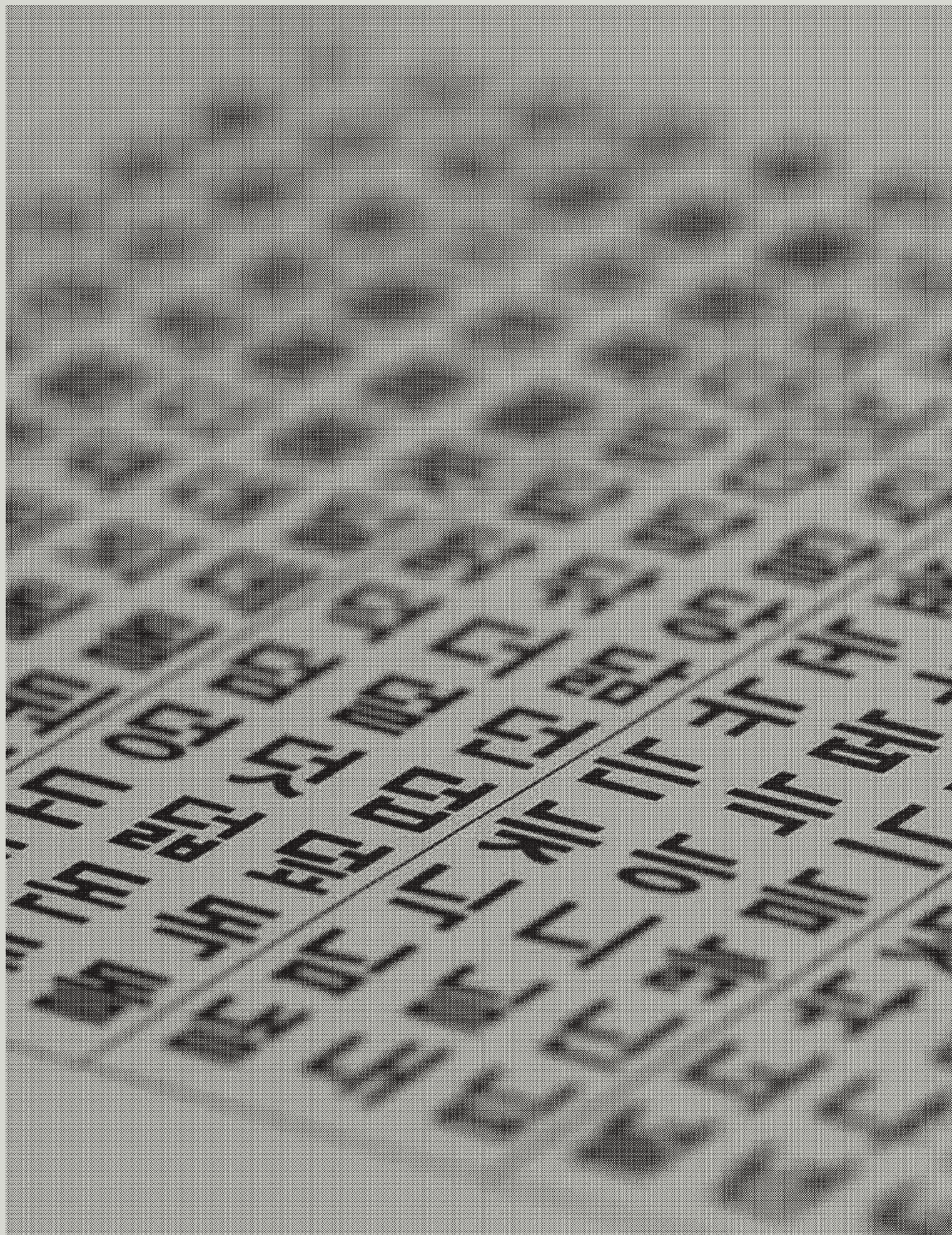
Hwaljache HAB31 original drawings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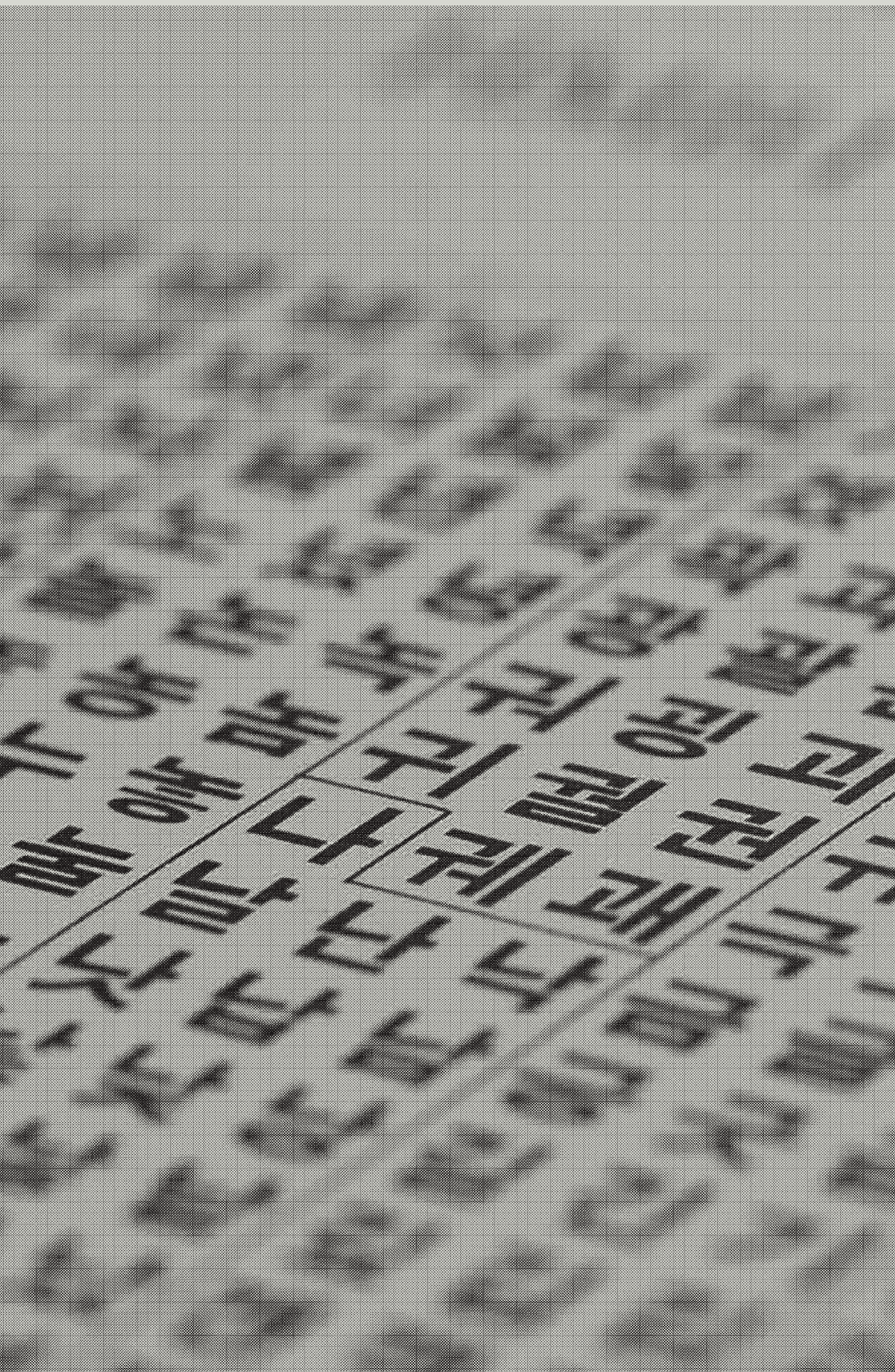
Morisawa collection



극세고딕 HBC501 원도 (위)  
모리사와 소장  
Geugsegothic HBC501 original drawings (up)  
Morisawa collection

태고딕 HB1 원도 (아래)  
모리사와 소장  
Taegothic HB1 original drawings (down)  
Morisawa collection





---

기획/편집/글	(주)모리사와
진행	(주)모리사와코리아, (주)안그래픽스 타이포그래피연구소
디자인/제작	(주)안그래픽스 디자인사업부
인쇄	효성문화
문의	(주)모리사와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6 LG팰리스 921호
전화	02-337-3227
홈페이지	<a href="http://kr.morisawa.co.jp">http://kr.morisawa.co.jp</a>

---

Planning/Editing/Writing	Morisawa Inc.
Management	Morisawa Korea Inc., Ahngraphics Typography Lab. Inc.
Design/Production	Ahngraphics Design Dept. Inc.
Printing	Hysung Munhwa
Contact	Morisawa Korea Inc. 921 LG Palace Bldg. 156 Yanghwa-ro Mapo-gu Seoul
Tel	02-337-3227
Homepage	<a href="http://kr.morisawa.co.jp">http://kr.morisawa.co.jp</a>